

40호가 40만수 집단양계하고 있는 우끼노(浮野) 양계협동조합을 찾아서 (I)

일 본에서 양계하면 아이찌현(愛知県)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양계왕국 애지(養雞王國 愛知)라고 불려지고 있다.

즉 나고야중, 미가와종이 종래의 닭품종으로 전래되어 왔으나 현재는 지가(地価)의 상승, 공해, 교통편리에 따른 수송수단의 발달로 큐슈, 시코쿠, 북해도 등지가 발전되고 있다.

필자는 아이찌현농업종합전시장의 양계전문지도관 이시모도 박사의 안내를 받아 아이찌 이찌노미야시의 우끼노 양계협동조합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일본에서 우수한 협동조직에 의한 양계조합이라 하여 흥미를 갖고 진지한 토론과 조사를 하였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었다.

시노다 회장이 핵심인물이며 그가 중심이 되어 전후 40여년간 이끌어 오며 훌륭한 협동조직체제에 의한 양계경영으로 평균 1만수 정도의 규모로 부유한 생활을 향유하고 있었다.

지역특성은 남쪽이 나고야시, 북쪽이 기후시의 중간에 위치한 도시로서 지역전체가 나고야 대도시

권에 포함되어 나고야 근교라는 입지조건 주택 공장지대이다.

우끼노단지 농가호수가 불과 60호, 경지면적이 1호당 3천평으로, 경영규모는 큰편은 아니다. 옛부터 채소지대로 알려져 채소에 비료를 쓰기 위해 계분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양계를 부업적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유지 17명이 1948년에 양계협동조합을 발족시켜 지금에 와서는 전업의 길을 밟게 되었다.

조합의 특성을 살펴보면

① 「가정의 화목, 인간의 화목, 조합의 화목」 삼화(三和)를 표상으로 하여 '마음을 합하고' '힘을 합하며' '도움을 합하여' 일한다는 기본방침으로 조합을 착실히 운영하고 있다.

조합은 조합원의 복지증진을 위함을 최대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조합원을 위하여 조합은 운영되고 있다.

② 조합원은 판매, 구매의 전부를 완전100% 조합을 이용하고 있다.

우끼노단지는 농가호수가 불과 60호, 경지면적이 1호당 3천평으로, 경영규모는 큰편은 아니다. 옛부터 채소지대로 알려져 채소에 비료를 쓰기 위해 계분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양계를 부업적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유지 17명이 1948년에 양계협동조합을 발족시켜 지금에 와서는 전업의 길을 밟게 되었다.

③ 조합원의 경영·기술지도에 의한 경영개선 향상을 최고의 중점과제로 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양계수입에 직접 관련있는 사양관리부분을 개인의 책임으로 하여 경쟁의 원리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수입이 적은 부분을 조합운영으로 함에 따라 경영의 향상을 주안점으로 체제를 편성하고 있다. 이 체제가 조합원에게는 이익향상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④ 조합원 수지에 대하여는 생산과 생활을 구분시켜 경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생산관계에서는 청색신고서까지 세무처리를 컴퓨터로 처리하고 있다.

월2회의 정례회의에서는 컴퓨터에 입력된 데이터 특히 사육성적, 경영수지를 분석한 것을 공개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경영성적의 향상과 연결되어 개선되고 있다.

⑤ 조합원의 연구회나 회의 및 정례회에는 시간업수가 철저하며 소집시간 5분전에 전원 참석하여 정시에 회의를 개최한다. 특히 시간업수는 공동작업, 조합행사에는 정확히 실행되어 집단활동에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습관으로 되어 있다.

⑥ 조합의 임원은 이사 5명, 감사 2명이며, 이들은 창립 이래 전원 비상근무보수로 봉사적인 헌신노력을 하고 있다. 이것이 조합과 조합원을 단결강화와 신뢰의 근본이 되어 왔다.

⑦ 조합원의 수익은 조합으로 예금·예탁되며 조합원의 가계비 지출을 조합이 대행하고 있다.

⑧ 담소(談笑), 정보교환의 장소로서 조합본관에 휴게실이 설치되어 오전10시와 오후3시 등 2회 이용되고 있다. 휴게실 운영은 조합원 전체의 친목과 유대강화, 화합의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이 이 조합의 현재의 토대가 되고 지주가 되는 특징으로 되었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니다. 필자가 방문한 때가 오전10시였는데 많은 조합원이 모여 있었다. 이와 같이 오전10시와 오후3시에는 조합원들이 모여서 휴식도 취하고 차를 마시며 서로가 대화를 나누면서 친목, 기술지도, 정보교환 및 의견교환 등을 자유롭게 하고 있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이상과 현실, 이론과 실재는 종종 차이가 나기 마련이다. 이것을 일치시키는데는 화합·조화만 강조되어도 안되는 일, 그 누군가가 지도자로서의 희생적인 봉사, 신뢰받는 언행, 정직·성실하고 이기심이나 사심을 버리고 선도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도 이와같은 정신과 실천을 바라며 자기의 발전과 권익을 보호받으며 공존·공생·공영되길 회구해 본다.

조합공유시설로서는

① 본관 사무실(약90평)

1층에는 조합사무실, 응접실, 조합장실, 휴게실, 위생실이 있고 2층에는 회의실겸 강당이 있어서 연간 100여회 이용하고 있다.

조합사무실에는 참사 남자1명과 여자직원 3명이 모든 장부처리, 접대 및 업무를 맡고 있으며 그 직원도 조합원 가족중에 한 사람이었다.

② 육추사(2동, 약205평)

대형입체식 육추기 30대(1대 1,200수용)가 수용하



약 3년에 걸친 저난기로 양계업이 위기에 처했을때 우계노양계 조합원은 저난기에 대처해 살아남는 길은 강한 경영체질개선이 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었다. 이렇듯 조합의 합리화, 조합원의 경영개선을 확립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는 것을 생각케 하고 또 기술과 경영을 조화있게 효율화하여 나가는 길이라고 믿었다.

고 있으며, 시설은 100% 활용되어 연6회 회전하며 격월로 조합원이 조편성하여 입추를 하고 있다.

③ 육성사(6동, 약410평)

여기에서는 26일~45일령까지 사육하며 모두 공동 이용되고 있다. 사양관리는 조합원이 조편성되어 각 자가 실시하고 있다. 또한 다음 사육자가 이용할 때는 일정한 공백기간을 두었다가 다시 소독하여 사용하게 된다.

④ 사료공장(약370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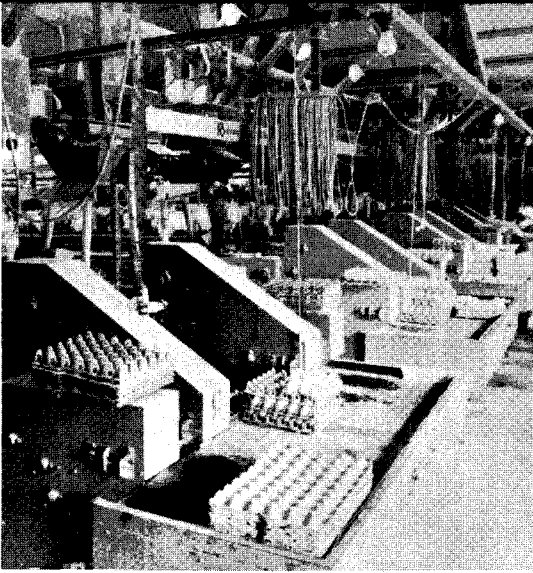
월산 2천톤의 능력을 가진 공장으로 연령별, 능력

별, 계절별로 일정하게 공동으로 사료를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다. 일요일 제외하고는 100톤용 3기를 설치하여 보세공장으로서는 인가받아 수입사료를 직접 구입하고 있다.

⑤ 폐기처리공장(약42평)

일산 2톤의 폐기처리를 할 수 있는 반자동식 처리 공장을 설치하여 매일 도태계를 미리 선별함으로써 사계, 병계를 조기발견하고 생체처리하여 조합원의 생산성 향상과 이익에 공헌하고 있다.

⑥ 계란선별처리장(약240평)



1일 30만개의 계란을 선별, 세척, 검란, 포장처리 할 수 있는 컴퓨터제어장치의 최신기계를 설치 3대를 가동 중이며, 균일·신선한 품질을 보증하는 우끼노양계협동조합 상표로서 슈퍼 직매점에 공급되고 있다.

참고로 계란규격은 다음과 같다.

LL : 70~76g, L : 64~70g, M : 58~64g, MS : 52~58g, S : 46~52g, SS : 40~46g
이와같이 규격별로 10개씩 포장되어 판매되고 있다.

⑦ 계분처리장(약320평)

대형화력건조기 4기와 발효열이용건조기 1기, 또 공해대책으로서 약제혼합수로 추기가스를 세척하는 탈기장치와 오수정화조를 설치하여 일량, 60톤의 원료계분을 처리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어 건조계분 15톤(15kg입 1,000포대)을 생산하고 있다.

제품은 농협을 통하여 판매되며 나머지는 취급업자에 의하여 연간 평균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⑧ 기타

대형트랙터 2대, 이양기, 대형콤바인 2대, 버건조 조정시설 등을 가지고 조합원의 벼농사 부분도 담당하여 양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인근부락의 농가에서 의뢰가 있으면 활용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공동시설을 갖추고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함으로써 소규모 양계농가에게는 생산에만 전

념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자가노동력의 관리를 충실히 성심성의껏 실천하여 생산능력의 극대화, 원가절감방안 등을 상호 비교검토 개선해 나감으로써 생산성을 높이는 결과가 된다고 본다.

최근 인건비 상승과 굶은 일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하여 인부구인란, 수시교체되어 일관성 없는 관리, 감독불충분, 불성실한 관리로 생산성저하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실정에서 대규모 양계가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반면 영세한 양계업자는 생존권을 잃고 있는 이때 이와같은 협동조합 양계는 특히 영세양계가의 살 길이라고 확신하며 우리나라도 이를 본받아야 된다고 본다.

수지 맞추는 경영기술주도형으로

약 3년에 걸친 저난가로 양계업이 위기에 처했을 때 우끼노양계조합원은 저난가에 대처해 살아남는 길은 강한 경영체질개선이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었다. 이렇듯 조합의 합리화, 조합원의 경영개선을 확립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는 것을 생각해 하고 또 기술과 경영을 조화있게 효율화하여 나가는 길이라고 믿었다.

먼저 중요한 것을 조합원의 의식구조개선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느냐, 적자를 보느냐, 하는 강한 의지와 사명감에서 서로의 머리를 맞대고 의논함과 아울러 각자 성의를 다하여 능력을 올리는데 지출을 줄이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을 착안하여 조합원의 이해와 협조하여 창의된 것이 사료비 지출절감이었다.

사료비는 생산비의 약 60~70%를 차지하므로 사료비절약은 양적손실, 질적손실, 금전상의 절약은 물론이고 사료구입량 대 계란총생산 나아가서는 사료구입대금 대 계란총생량으로 경제적 효율의 개선이다. 즉 사료요구율의 개선과 사료단가의 절감화가 가능한 범위까지 경영을 개선하여 지출억제로 수익을 높이자는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